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함서
인도불교동기추진위 (02)745-7799
종교은행 741-04-365950 (예금주:인도불교)

“살려주세요” 산과 스님의 절규 들리는가?

금정산·천성산 수호 지울스님 단식기도

금정·천성산 관통 반대일지	
2002년 1월 21일	금정산 범어사 경내계곡 고속철도 관통반대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
5월 23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토론회
7월 2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2차토론회
7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내원사 선방 수녀, 신부님 등 동참한 삼보일배
7월 2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천성산·금정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 결의대회
9월 10일	국제신문 4층 문화센터에서 고속철도 노선변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시민공청회
10월 14-18일	지울스님과 내원사 스님, 분노수녀회 수녀 8명,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도보순례
10월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길거리 작은음악회
10월 26일	부산시청 앞 대문후보 노선변경 공약 촉구 대회 및 민주당 노무현 후보 간담회(여역선)
11월 3일	양산-부산 간 자전거 투어
11월14일~12월 1일	제8차 탐사회의 참가, 천성산 관통반대 및 산지습원 보전 홍보
11월 26일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 결의대회
12월 4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통반대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공약 발표
2003년 1월 11일	법기리, 임기리 일부구간 공사 강행, 시민종교대책위,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월 28일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1000인 서명운동 결산 천인선언 행사
1월 29일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창립
2월 5일	지울스님 무기한 단식 돌입



◇'자연과 공생'이라는 화두를 든 지울스님은 지난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산이 아프면 우리도...공생만이 살길 산 살리기 위해 최악의 경우도 각오” 불자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도 동참

“천성산을 수 없이 오르내리며 만났던
능가의 작은 벌레들, 이름 모를 꽃들, 숲을
지키는 작은 새들과 노루를 향해 저도 모
르게 중얼거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단식을 시
작했습니다.”

입춘 다음날인 5일 오전 11시, 갑자기 추
워진 날씨 속에 지울 스님은 부산시청 앞
에 자리를 깔고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 실현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성산을 오
르내리며 직접 찍었던 천성산의 아름다운
꽃, 나무, 풀들이 스님을 지키는 호법신장
처럼 스님의 곁을 지켰다. 산고양이에게
몰려 죽을 상황에서 구해 났다는 사진 속
어린 소쩍새의 눈망울이 유난히 조롱하다.
그 눈빛은 산고양이에게서 소쩍새를 구했
듯 고속철도 관통으로부터 천성산을 구하고
싶은 지울스님의 간절함을 담았다.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사진
전을 열고 있는 스님의 단식은, 스님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천성산의 생명들
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지키는 데 마
음의 에너지를 모아주길 소원하는 기도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천성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모일 때까지는 물 이외에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고 단식을 시작했지만 그
자세만큼은 변변한 선승과 다르지 않다.

“도와달라”는 말. 요즘 스님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말 중의 하나다. 하지만 그것
은 스님이 대신 전하는 금정산의 말이고
천성산의 절규다. 스님은 단식을 시작하며
“처음 고속철도가 천성산의 심장부를 관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산이 도와 달라
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고, 도와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며 그 약속을 지키고자 단

식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스님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천성산 구간의 발주
취소를 약속했음에도 한국고속철도공단
의 천성산 발주(2월 6일)를 묵과하고 있다”
며 “이를 묵과하는 일은 새로운 정부가 불
교계와 국민을 향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
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
했다. 스님은 “불교계와 한 약속을 쉽게 저
버리는 현실을 지켜보면, 화엄성지인 천성
산과 선찰대본산인 범어사를 품고 있는 금
정산을 지키는 일은 불교계의 자존심을 지
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첫날, 시청 앞 광장에는 지울 스님의 뜻
을 지지하는 불자들이 금정산 지킴이단 회
원, 양산-부산간 자전거 투어에 함께 했던
사이클 동우회 회원들이 방편해 힘을 보탤

다. 또한 지나던 시민들도 사진을 둘러보
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6시,
어둠이 짙어지자 스님의 단식은 통도사부
산포교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다.

둘째 날인 6일, 오전 8시 통도사부산포교
원을 출발, 부산시청에 도착한 스님은 부산
시청 광장 앞에 도롱뇽, 장수풍뎡이, 소쩍
새, 이름 모를 풀, 꽃 등 천성산의 작은 생명

이 담긴 사진을 다시 배치하는 일부터 시작
했다. 이어 아침햇살을 받으며 300배 기도
를 시작했다. 이날 기도에는 부산 녹색연합
의 김은정 부장도 함께 했다. 출근길을 서
두르던 사람들도 야외에서 오체투지를 올
리는 스님의 기도와 천성산 사진들에 눈길
을 주며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지울 스님의 단식은 단순히 천성산, 금

정산 고속철 노선 백지화라는 가시적 목표
에 한정된 게 아니다. 자연과의 공생(共生)
만이 살길임을 일깨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
표다. ‘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고 밤을
새는 고심 끝에 만든 표어나 플래카드가
이런 스님의 마음을 대변한다. 스님은 “천
성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한 단식은
우리의 염원을 담은 반성과 성찰이며, 말
없는 산에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처음의 약
속을 잊지 않기 위한 기도”라며 “환경문제
에 대한 답은 현 세태뿐만 아니라, 미래 세
대를 위한 지혜와 통찰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단식이라는 절박한 표현 방식을 선택한
스님이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다.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제목처럼 천성산을 위
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악의 경우도

각오한다”고 털어놓았다.
옆에서 스님을 지켜보던 청정화합시민
연대 관계자는 “하루하루 아워어 가는 스
님의 육신은 곧 천성산의 앞날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위해 우리는 스님이 단식을
끝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스스
로 불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천성산, 금정산을 지키고 지울 스님
을 지켜야 한다”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
다.

지금 스님은 혼자 단식을 하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
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들, 전용호 씨를 비
롯해 부산, 마산·창원, 울산 등의 환경운
동연합, 녹색연합 등에서 스님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으며 신부님과 스님들도 격려
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내원사 비구니 스
님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연대에서도
날마다 스님을 찾아 2~3명씩 단식에 동참
하고 있다. 또한 13일에는 지울 스님의 단
식 농성을 이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토론
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병인 교수, 부산
대 이성호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대구-
부산간 노선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 천
성산의 현황과 문제점, 지질, 지하수 영향,
생태적 가치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짚어보
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의 염원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경
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이 백지
화되고, 새로운 노선이 결정되기를 기원하
며, 화엄성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곧 나의 일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지울 스님의 눈길은 사진 속의
생명들에게로 향한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내원사 산감... ‘환경과 자연’ 화두 삼아

지울스님은

지울스님은 산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
원사 ‘산감’을 맡았다. 4년 전 천성산을
돌보는 산감 소임을 맡은 이후부터 천성
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내원사를 찾는 불
자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
을 산감 소임에 추가시켰다. 그런데 양산
시의 입도 개설이 진행되고 고속전철 관
통으로 천성산이 몸살을 앓으면서 스님의
산감 역할은 아예 천성산을 지키는 일로
바뀌버렸다.

천성산과 천성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지키는 일은 스님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
다. 십 수년 전 내원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전국의 선방을 돌며 10년 가까운 시간을
선방 수좌로 지내왔다. 그런 스님에게 주
어진 ‘환경과 자연’이라는 새로운 화두
참구는 선방 수좌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
르지 않다. 24시간 천성산만을 생각하며
보낸다. 오로지 산을 지키겠다는 마음으
로 배고픔도, 추위도 잊고 오늘날도 스님은
부산시청앞에 앉아 산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지울스님이 찍은 천성산 생태계 사진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
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
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러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
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환육체를 가지게 된다하
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
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
히
”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